

2021년 7월 31일

교구 신자 여러분께

대주교 마에다만요

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조치(14 차)

+주님의 평화

도쿄 올림픽도 시작되어, 뜨거운 싸움속에서 일본 선수단의 활약이 눈부신 나날입니다만,

동시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예상외의 감염 확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8 월 2 일부터 31 일까지 오사카부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선언,

효고현에 대해서는 만연방지등의 중점조치를 발령했습니다.

이에 따라 오사카 교구에서는 8 월 2 일부터 31 일까지

"오사카부는 조치 제 11 차(4 월 23 일자)에 따라 비공개 미사(공개 미사 중지)로 한다."

"효고현과 와카야마현은 조치 제 13 차(6 월 18 일자)에 맞는 형식으로 공개미사를 계속한다."

는 것으로 전례의 수칙을 정하였습니다.

교구장으로서, 특히 오사카의 신자들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,

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부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는 최근 전례 없는 시련입니다.

이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, 동시에 이 시련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신앙의 눈으로 찾아 나갑시다.

기도와 감사 속에서